



에덴뉴스

2017년 3월
통합 11-61호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05 따뜻한 하루
달콤하고 따스한
사람 사는 이야기

07 에덴 마당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FOCUS 이달의 포커스



행정원장 정창근 목사 정년퇴임식

에덴요양병원(병원장 김남혁) 행정원장으로 봉사한 정창근 목사가 지난 21일 병원 대강당에서 정년퇴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39년간의 목회사역을 마쳤다.

이 자리에는 동료 목회자와 가족, 제자, 환우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정들었던 교단을 떠나는 정창근 목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10절 말씀을 인용한 은퇴사에서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을 돌렸다.

정 목사는 이어 "저의 가장 큰 축복은 재림교인이 된 것이고, 목사로 부름 받아 사역한 것"이라며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선.후배 목회 동역자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정창근 목사는 재임기간 중 에덴요양병원 설립 당시 차용했던 부채 전액 상환과 병원 운영 정상화에 힘썼다. 특히 목회 39년 중 29년 동안 기관목회를 하며 습득된 노하우와 뛰어난 행정능력을 활용해 병원행정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주변정비 및 환경개선에도 앞장섰다.

김남혁 병원장은 "정 목사님께서 우리 병원에 재직하면서 보여준 건강한 생활습관과 직원을 향한 관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지극한 사랑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패를 전달하고, 퇴임 후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했다.

자리를 같이한 한국연합회장 황춘광 목사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황 연합회장은 마태복음 24장44절 말씀을 인용한 설교에서 "정창근 목사님이야말로 '사람' '시간' '일'(사업)에서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였다"고 치하했다.

전 동중한합회장 엄보석 목사는 회고담에서 "그는 내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친구다. 나를 늘 기운 나게 하는 사람이었고, 중대 결정의 적절한 시기를 알려줬다. 내가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로 인해 나는 인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했다.

정창근 목사는 1952년 5월 5일생으로 삼육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1978년 3월 동중한합회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후 본부교회와 봉우리교회를 거쳐 대공원교회를 개척했다. 동중한합회 청소년부장, 교육부장으로 일했으며, 서울삼육중고 교목, 삼패동교회, 강릉중앙교회, 교문리교회 등 일선 교회에서 목양했다.

동중한합회 재무부장, 총부부장을 역임한 후 2004년부터 6년 동안 한국연합회 교육부장으로 일했다. 2010년부터 에덴요양병원 부원장, 행정원장으로 봉사하며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NEWS 에덴의 소식



요양병원 평가인증 컨설팅

지난 15일과 16일, 요양병원 평가인증 준비 컨설팅을 진행했다. 평가인증원에서 파견한 세 명의 컨설턴트가 이틀 동안 병원 곳곳을 누비며 환자추적조사 및 시설안전 등 규정을 기초로 하여 평가인증제도에 맞게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에덴요양병원은 금년 9월 말경 제 2차 요양병원 평가인증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목표로 인증 준비 중에 있다.

에덴요양병원 디지털시계 설치

지난 21일 정년퇴임 한 정창근 행정원장의 제안과 기증으로 병원 현관 위 디지털시계를 설치했다.

병원 진입로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LED시계 설치로 산책이나 야외활동을 하는 환우들이 손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LED 대형 스크린 설치

에덴요양병원은 에덴병원교회와 연합하여 대강당에 200인치 LED스크린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LED스크린은 병원, 교회 그리고 성도와 환우들의 후원금으로 설치되었는데, 밝고 깨끗한 화질로 전해지는 영상은 예배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환우들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의 화면을 접하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동정

♥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철(원목실) 2월 28일 부

♥ 환영합니다 ♥

송정욱(원목실) 3월 1일 부



STORY 투병이야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호 추선희

경기도 수원에 사는 추선희입니다. 저에게 요즘 주어진 하루하루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볼을 고집해보며 이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를 자신에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OO유업의 판촉 매니저로 할인점을 관리하는 판촉팀장 이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안 하던 상태였습니다. 일이 좋아서, 일에 미쳐서 교회나 여가 활동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었는데.....

뜻하지 않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저에게 암이 같이 살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암 때문에 전혀 모르고 살았을 이곳,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며 하나님께서 에덴요양병원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밖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만큼은 아무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어차피 온 이곳에서 너무 오랜 시간 암과의 동행보다는 해결의 축복을 빨리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태희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나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때 갑자기 새벽기도회 나오니 좋은 말씀과 축복의 기도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1월2일 류태희목사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하는 말씀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나에게 너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준 신랑과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엄마 손길이 한창 필요한 나이인데, 엄마를 위해서, 엄마만을 위한 밥상이 준비되었고 엄마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 이곳에서 생활하도록 배려해준 가족이 너무 고맙기만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곳에서 나가면 에덴요양병원 홍보대사로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곳에 와서 새로운 생활을 살게 해 주시고 소리 없이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ON DAY 따뜻한 하루

서리산에 눈이 내리면

비금리에서 315호 주송희

이곳 서리산에 눈이 내리면 낮은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된다.
 바람에 날려서 옆으로 휘날리는 눈의 날림이 서리산 겹겹의 나무들을 배경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여름에 내리는 비가 바람을 타고 물결지어 옆으로 날려가는 모습이
 이곳에 와서 알게 된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였듯이
 겨울산에 내리는 눈이 너무 좋아 기다려진다.
 바리만 봐도 좋은 눈 덮인 산을 걷고 싶다.
 그것을 걷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한 것이리라.
 창조주의 숨씨에 취해 기쁨을 느끼고 싶다.
 인간의 즐거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사하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아무런 고통 근심 없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고 싶다.



어젯밤에 많이 추워진대더니 자고 나니 창문에 서리꽃이 폈다.
 눈 모양의 문양이 예쁘다.
 어렸을 때 날씨가 많이 추워서 겨울에 창문 가득 피던 서리꽃을 이곳 서리산에서 보게 된다.
 추운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을 선물해 준다.
 해가 뜨고 따뜻해지면 사라져버릴 서리꽃.
 오늘은 또 눈이 온다고 날씨도 추우니, 그저 거기 있을까?
 서리꽃을 결정이라 딸이 말한다.
 햇빛 받아 서리꽃이 반짝인다.
 창 밖에 눈꽃이 날린다.
 아름다운 세상이다.

2017년 1월 17일에



브로콜리(Broccoli)

브로콜리는 지중해 지방 또는 소아시아가 원산이다. 이름은 라틴어 Brachium에서 유래되었는데 가지(Branch) 또는 팔(arm)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배추가 개량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식용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Broccolo라고 불렀고 미국에서는 Italian gre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줄기의 끝에 매달리는 작은 꽃뭉치를 식용하는데 높이 50~80cm로 자란 가지 끝에 달린다. 가지가 뾰고 곧추 자라며 중앙 축과 가지 끝에 녹색 꽃눈이 뾰뾰하게 난다. 줄기가 보다 길게 자라고 꽃봉오리는 지름 12~15cm이다.

날것으로 먹거나 요리해서 먹으며, 짙은 녹색으로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다. 온화한 기후에서 서늘한 기후까지 잘 자라며 종자로 번식한다. 중앙의 꽃봉오리뿐만 아니라 잎겨드랑이에서 작은 꽃봉오리가 생기는 것도 있다. 이와 비슷한 종으로 콜리플라워(cauliflower)가 있는데 원줄기의 끝에 젖빛이 도는 흰색의 꽃봉오리가 달리며 이를 식용한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Sulforaphane)과 인돌(Indole)화합물이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돌은 에스트로젠(Estrogen)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방암 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여 뼈의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한다.

브로콜리로 만든 에덴의 항암채식요리



브로콜리 참깨소스 무침

레시피 보러가기
QR코드를 스캔하세요



FOOD 계절을 대표하는 건강 식품



브로콜리의 효능

항산화작용 및 면역력 개선 브로콜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 등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 속의 활성산소 제거와 해독작용을 하여 노화방지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위장질환 개선 브로콜리에는 양배추보다 많은 비타민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죽이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변비 예방 브로콜리는 풍부한 식이섬유 함유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줄 뿐더러 100g당 33kcal밖에 안하며, 장 청소효과까지 뛰어나 변비예방에 좋다.

골격 강화 브로콜리는 비타민K와 C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칼슘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특히 관절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

혈관 질환 예방 브로콜리의 풍부한 칼륨은 잉여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혈압을 낮춰주며, 혈액순환을 향상 시켜주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

칭찬합시다 COMPLIMENT

한 편의 시

나호림 부장님을 칭찬합니다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사랑과 시간을 할애하시고, 개인 시간을 근무 시간 아니어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환자를 돌보아 주시는 수고에 여호와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315호 주송희

김현철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일단 무조건 들어주시는 목사님!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데 저희들 얘기 들어주시느라 정작 본인 얘기 못하시고 늘 듣고 계시는 소통의 목사님
정들자 이별이라 넘 아쉬워요~

506 유오역

나호림 부장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인자하시고 치료 시 섬세하게, 꼼꼼히 해주시고 병실 방문 시 따뜻하고 환자에게 너무도 정중하게 대해주십니다
빌 때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치질환자의 변도 직접 파내서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208호 박미울

최철규 님을 칭찬합니다

패스파인더를 잘 이끌어 주시고 항상 좋은 것만 해주시고 친절하셔서

장우혁 님

에덴병원 가족은 누구나 정말 모두 모두 친절하십니다
그래도 항상 입가에 웃음과 기분 좋은 말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병실에 들어올 때 나 나갈 때 스마일 하시는
김미정 샘을 칭찬합니다.

202호 추선희

권준희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언제나 친절하시고 환우들에게 웃음으로 대해주세요

210호 이정임

추운 겨울날 하우스 속에 파릇 파릇 새싹을 키우시는 **전기선 장로님**♡

장로님의 고운 마음씨 속에 어드렛 따스한 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112호 이필연

2층 간호부 **김미정 선생님**
항상 밝은 웃음과 용기를 주어 감사합니다.

114호 고영철

112호 이필연님을 칭찬합니다
에덴의 여러 환우들과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112호 정의순

바람

최용구

소나무 가지 위에
쉬고 있는 하얀 눈
바람 타고 훨훨 날아
어깨 위, 머리 위 쌓이고

심술쟁이 바람결에
이리저리 뒹굴다가
구렁이에 풍덩

먼저 온 나뭇잎이
정처 없이 떠돌던 객
반갑게 반기네요

하얀 뭉게구름
꿈 소년에 배달하고

입안 가득 물 머금은 비구름
농부에게 뿌려주오

일곱 색깔 무지개는
꿈꾸는 내 님에게 펼쳐주렴

2017. 2. 19
눈발 날리는 산책로에서



편집후기

봄이 온 것을 가장 빨리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봄을 스치는 따스한 기운은 움크린 가슴을 펴게 합니다. 꽃 소식도 들려옵니다. 통영 통도사의 홍매화, 거제 장사도 동백꽃 그리고 에덴 환우들 가슴에 사랑꽃도 피었습니다. 2017년 새봄과 함께 활기찬 환우들의 건강해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파이팅!!

- 에덴뉴스 편집장 행복돌쇠

에덴요양병원은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홈페이지 www.edenah.com
- 블로그 blog.naver.com/edenah
- 유튜브 www.youtube.com/user/TVEdenah
-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enhospital
- 트위터 twitter.com/Edenhospital

검색창 에덴요양병원 ▼

절취선

틀린 그림 찾기 (6개)



이름 : 호실 : 호

- ♥ 틀린그림찾기 정답, 칭찬의 글을 홍보실로 보내주시면 매월 각 1분씩 추첨하여 매점상품권을 드립니다.
- ♥ 접수마감일은 3월 25일이고, 틀린그림찾기 정답과 칭찬의 글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당첨확률이 높아 집니다.

♥ 지난 호 당첨자

- 틀린그림찾기 112호 이필연
- 칭찬합시다 201호 이정임, 208호 박미울

♥ ()님을 칭찬합니다.

- 칭찬사연을 자세히 남겨주세요

